



# “千里不同風，百里不同俗”

第18次 國際自然保存聯盟

(IUCN) 總會에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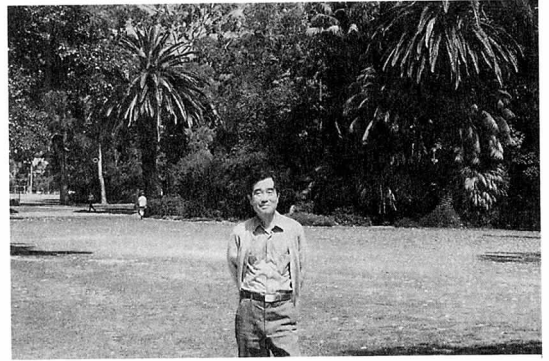
李 和 永

## 三好三不好

丹楓이 落葉이 되어 떨어지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  
 한 서울을 떠나 열시간 남짓 비행하여 25,000리 남쪽  
 에 있는 西部 濠洲의 首都 “퍼스”(Perth)에 도착하니  
 초여름의 季節이었다. 赤道로부터 만리나 남쪽인 이  
 곳은 北半球인 우리 나라와는 節候가 정반대현상  
 이다. 서울만한 넓이의 땅에 불과 백만명이 살고 있  
 고 중공업시설이 없으니 맑은 空氣, 깨끗한 물, 푸른  
 숲에 둘러쌓인 地上樂園의 自然條件이었다. 그러나  
 造物主는 이곳에도 세가지 좋지않는 것을 남기었다.  
 수많은 파리떼, 세차게 부는 바람 그리고 不毛의 땅  
 인 沙漠이 그것들이다. 後者의 두가지는 自然조건이  
 므로 어쩔 수 없다하겠으나 前者인 파리는 空中消毒  
 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앨 수 있을텐데 그냥 놔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人工的인 방법이 혹시나  
 生態系의 變化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때문이라  
 한다. 자연을 사랑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大國的인 사고이다.

불과 165년전인 1826년에 50명의 流配囚와 “럭크  
 야”소령이 이끄는 수명의 호송군인에 의하여 개척되  
 고 세워진 도시치고는 그 규모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이 훌륭했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수도

서울과 비교할 때 무엇인가 우리들의 부족함을 느끼  
 게 했다.



▲ 西濠洲大學의 캠퍼스에서의 筆者

## 워크숍은 아름다운 西濠洲大에서 광활한 주차장과 사택 및 기숙사

“워크숍”이 열렸던 서호주대학의 “캠퍼스”는 시설  
 이나 주위환경이 모두 아름다웠다. 정확한 넓이는  
 모르겠으나 만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고 오천  
 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기거할 수 있는 사택과 기숙  
 사가 있으니 부러울 따름이었다. 주차장시설의 운영

방법이 흥미로웠다. 주차표지를 네가지 색깔로 구분하여 고학년은 가까운 곳에 저학년은 먼 곳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만명의 학생중 45%가 동양계로서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의 유학생이고 한국학생은 100명정도라 한다.

## 西部호주면적만도 우리나라 26배

### 53개 국립공원과 15개 保護林지정

호주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륙이나 제일 큰 섬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부호주는 호주의 전체면적의 1/2인 약 257만km<sup>2</sup>로서 우리나라보다 26배나 크다. 그러나 인구는 전체의 1/8인 150만명이니 km<sup>2</sup>당 인구밀도는 1.7명에 불과한 황막한 땅이다. 그러나 53개의 국립공원과 15개의 보호림이

지정되어 있고 그 면적은 46,300km<sup>2</sup>로서 우리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이다.

## 더많은 국립공원指定을 主張 수천종의 동식물 멸종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국립공원과 보호림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써 지난 200년 동안에 18종의 포유동물, 3종의 조류 그리고 100종이상의 식물이 멸종되었고 현재도 수천종의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自然生態系과괴의 주범으로 鑛山開發을 지목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보호림 안에는 “우리님”을 위시하여 각종 광산물의 寶庫임으로 이를 개발하려는 정부와 광산업자를 상대로 자연보호주의자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Organised by the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Conservation Council of WA

**DON'T LET OUR NATIONAL PARKS BE SHAFTED!**

**RALLY**

12-15p.m. WEDNESDAY, 28 NOVEMBER  
G.O. EDWARDS PARK (opp Burswood Casino)  
For Opening of International Conservation Conference

★ SPEAKERS  
★ PERFORMANCES  
★ STREET THEATRE  
★ MUSIC

• Buses — 306, 307, 337, 338  
• Train — Rivervale Station  
• Parking — Burswood Road

**NO MINES IN NATIONAL PARKS OR NATURE RESERVES**

GAUSEHWY CASINO BOLTON  
GT EASTERN HWY CRAIG G.O. EDWARDS PARK \* BURSWOOD RD

The Greens (W.A.), The Wilderness Society, Jo Vallentine's Office, W.A. National Parks & Reserves, Wildflower Soc. of W.A., Environmental Youth Alliance, Gunavren Aboriginal Assoc., Greenhouse Corps, Murdoch Uni Wildlife Assoc., Swan Valley Fringe Dwellers,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People for Con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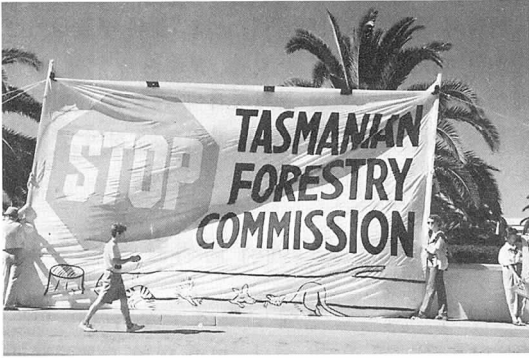


▲會議場 안에서의 示威, 國立公園안에서의 鑛山開發을 反對하는 피켓을 든 女人



▲會議場 밖에서의 示威, “國立公園과 自然保存地域內에서의 鑛山開發을 反對”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 國立公園안에서의 鑛山開發 反對 集會를 알리는 傳單 “國立公園을 坑道로 만들지 말라”는 口號가 적혀 있다.



▲會議場 밖에서의示威, “함부로 山林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會議場 밖의示威 “資源確保法”反對 플래카드 “앵무새를 잡지 말라”는 표어가 양쪽에 보인다.

IUCN총회기간중에도 회의장 안팎에서 抗議와 示威가 계속되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광산개발 절대 반대”였다. 입장을 바꾸어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서 희귀한 광물이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국토는 넓고봐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진다. 千里를 가면 風景이 달라지고, 百里를 가면 風俗이 달라진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 黃色바람과 전복잡이

“퍼스”시 주변에 유학생을 포함하여 400여명의 교

포들이 살고 있는데, 홍콩과 동남아지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수천명의 중국계에 비하면 보잘 것없는 수이다.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심가의 한 중국음식점은 점심 저녁으로 수백명의 중국인으로 붐비고 있었다. 白濠主義는 퇴색해 가고 있으나 경제발전에는 黃色바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越南의 폐망과 중동경기의 후퇴로 교포기능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投資移民이 늘고 있다. 우리 돈 3억원이 있어야하니 쉬운 일은 아니다.



▲ 성공한 僑胞의 밝은 表情과 아름다운 庭園(右側이 黃氏)

## 성공한 교포 黃씨가 우리 一行을 歡迎

투자이민의 첫 성공사례로서는 12년전에 와서 유테인 소유의 신발공장을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黃某씨를 들 수 있다. 비단 경제적으로 넉넉할 뿐 아니라 三兄弟 모두가 서호주대학을 거치고 있다. 장남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여 서호주광산회사에 취업중이고, 둘째는 치과의사 수업중이며, 막내는 법관지망생이다. 黃씨 가족은 첫날 우리 일행 아홉명과 교포 몇명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성대한 “가든파티”를 열어주었고, 회의기간중 여러가지 편의도 제공해주었다. 식후의 풍성한 화제중에 전복잡이 이야기가 흥을 돋게 했다.

가까운 해변에 가면 「전복」이 어찌나 많은지 초보자도 갈구리 하나만 가지면 두어시간 안에 손바닥크기만한 전복을 수십마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경 6cm이하는 잡아서는 안되고 한 사람이 잡

을 수 있는 한도를 하루에 20마리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당국에서는 감시를 엄하게 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30만원정도의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도 범법행위가 계속되자 당분간 「전복잡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다음 날 조간신문에는 범법사례가 열거되었고 그 주범이 홍콩과 월남에서 온 중국계 이민이라고 했다. Korean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으니 천만다행이었다. 少數의 덕을 본 셈이다. 문제의 「전복」을 먹으면서 기울리던 술맛은 일품이었다.

## 野生動物과 原住民

하루는 동물원에 갔었다. 몇군데를 거쳐 서호주에만 살고있는 특별관으로 갔더니 3時半 이후에 공개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영문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갔더니 한시간정도 더 있다가 오자고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필립公(엘리자베스女왕의 夫君)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언짢은 기분으로 돌아오는데 안내를 맡았던 黃씨의 둘째 아들이 “아저씨 실망하실 필요없어요. 내일 골프장에 가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하며 위로해 주었는데 半信半疑였다. 과연 골프장에는 「캥거루」를 비롯한 각종 동물과 파충류 그리고 새들이 자유왕래하고 있었다. 불과 7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용단같은 잔디위를 걷는 맛은 비길바 없이 좋았으나 여기에도 三不好는 도사리고 있었다.

### 눈앞 가리는 파리때문에 “펏팅” 어려워

심하게 부는 바람, 곳곳에 파여진 “병커”(크기가 300평이 넘는 것과 턱의 높이가 20m나 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펏팅”하려는 순간 눈앞을 가리는 파리떼들이다. 특히 파리들은 水分不足을 보충하려고 입안이나 눈속으로 날아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펏팅”의 성공률이 좋을 수가 없었다.

미국의 “인디언”이나 “에스키모”들의 생활상에는 陽地와 陰地가 교차하고 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들을 태만하게 만들어 “알콜”과 마약중독에 빠져들게 하여 급기야는 멸종의 길로 몰고 있다고 한다.

### 原住民數가 人口에서 除外된 뜻은?

“퍼스”市內에서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原住民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입만 열면 自然保護를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과연 원주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辭典에 보면 호주의 人口 다음에 괄호를 쳐서(원주민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멸종한 동식물의 수와 현존하는 야생동물의 수는 파악하고 있으면서 原住民을 人口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생동물보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감소되어가고 있는 수자를 숨기려는 심산인지? 또는 아예 도외시해버린 것인지? 아무튼 이유는 있을 것이다.

### 盛大한 歡迎파티場에서의 点描

주최측이 마련한 환영파티는 성대했다. 푸짐한 음식과 음악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白人에 의한 경음악단이 연주하였고 다른 한 쪽에서는 대조적으로 원주민에 의한 음악과 춤이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서양인은 경음악쪽에 모여 있었고 동양인은 원주민쪽에 모여 있었다. 표현하기 어려운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半白의 노인이 지휘하는 원주민 악단은 두명의 청년과 한명의 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막간의 휴식시간에 그 소년은 半裸의 차림으로 차려진 음식앞에 와서 서슴없이 주워 먹었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그 소년을 꾸짖거나 쫓아내지 않나 하고 은근히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런지 흐뭇하면서도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물어봤더니 열세살이 되어간다고 또렷한 영어로 대답했다. 공연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들은 “아이 추워,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했다. 필자도 술집으로 향했다.

# 第18次 IUCN 總會

## 「轉換期에 있어서의 保存」主題로

매 3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17차 총회를 1987년 남미의 Costa Rica의 San José에서 열렸고 18차 총회가 90년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서호주의 “퍼스”에서 개최되었다. 「轉換期에 있어서의 保存」이라는 大主題를 놓고 총회, 전문가회의, Work Shop,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會員: 國家單位나 個人資格으로는 入會할 수 없으며, 政府의 機關, 國際機構의 機關, 非政府機關(NGO)單位로 加入된 會員의 數는 720個 機關임.

2. 參加人員: 117個國에서 1,600名, 韓國代表로는 內務部 崔潤永 사무관의 5名, 自然保存協會의 金熏洙 회장 내외 그리고 國立公園協會의 李和永(筆者)의 9名.

3. 開會式: 濠洲 “호크”首相, 西濠洲 首相, “필립”公(WWF會長) 등이 致辭

4. 總會:

가. 第17次 總會 經過報告

나. 主題發表

다. 會員加入

몇개의 新規會員加入이 承認되었으나, 政治와 經濟單位가 統合된 國家聯合(EC를 指稱)의 加入申請은 압도적인 反對로 否決

라. 共用語追加: 英語, 佛語에 이어 西班牙語를 追加承認

마. 任員選出:

○會長: Shridath S. Ramphal(南美 Guyana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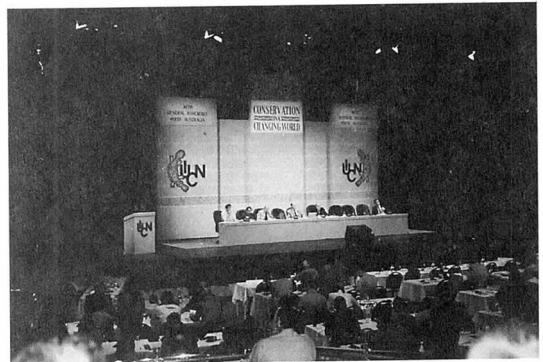
○事務總長: 留任

○國立公園 및 保護地域委員會 委員長: Lucas 박사(뉴질랜드人)

○地域理事: 韓國을 포함한 21個國이 東部아세아 圈에 속해 있으며 11名이 入후하였음.(韓國의 元炳 昨 박사 選출됨)

5. Work Shop: 12개 分科로 나누어 進行

6. 委員會: 6個 委員會中 國立公園 및 保護地域委員會(CNPPA)는 주로 10년마다 열리는 第4次 總會



▲ 제18차 IUCN 總會 全景



▲ 本會 第20次 정기총회에서 IUCN총회 참가보고를 하는 筆者

(1992年 2月10일부터 21日까지 南美的 Venezuela의 Caracas에서 개최됨)에 關하여 討議

7. 建議:

가.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소개책자(국립공원 관리공단 발행)에는 誤字, 脫字가 많았고 紙質이 두꺼워서 무거운데문에 운반에 支障이 있었음. 第4次 CNPPA總會에 대비하여 內容, 裝幀 그리고 紙質의 改善이 요망됨.

나. 第4次 國立公園委員會總會에는 切實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積極적인 參與(主題發表, 資料展示, 刊行物配布, 任員立候補등)가 있기를 바람.

[筆者: 前建設部局長·住宅公社副社長·本會代議員·第18次 IUCN總會 本會 代表로 委囑]